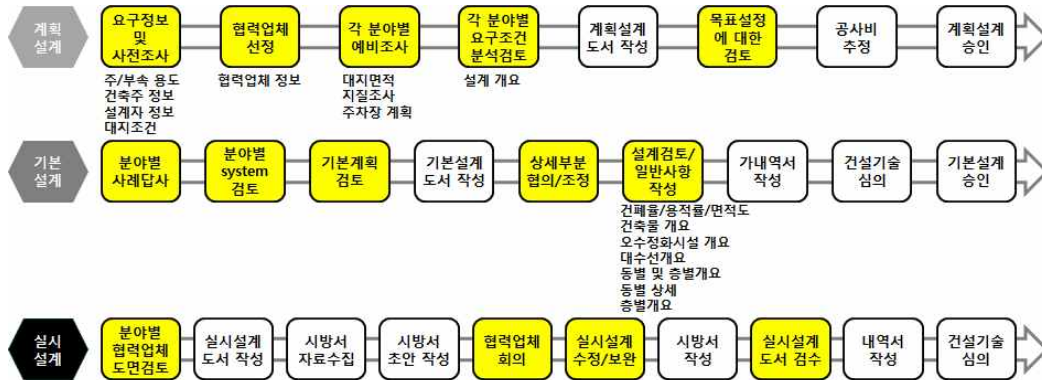


세부목표	국가연구개발 보고서원문 성과물 전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가공·서비스 하는 연구보고서는 동의 없이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설계단계의 설계-엔지니어링 인허가 통합연계 협업시스템 개발		
3-1	설계-엔지니어링 인허가 협업기준 및 정보교환 표준규격 개발		
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내용 및 결과>

• 건축물 인허가 사전 업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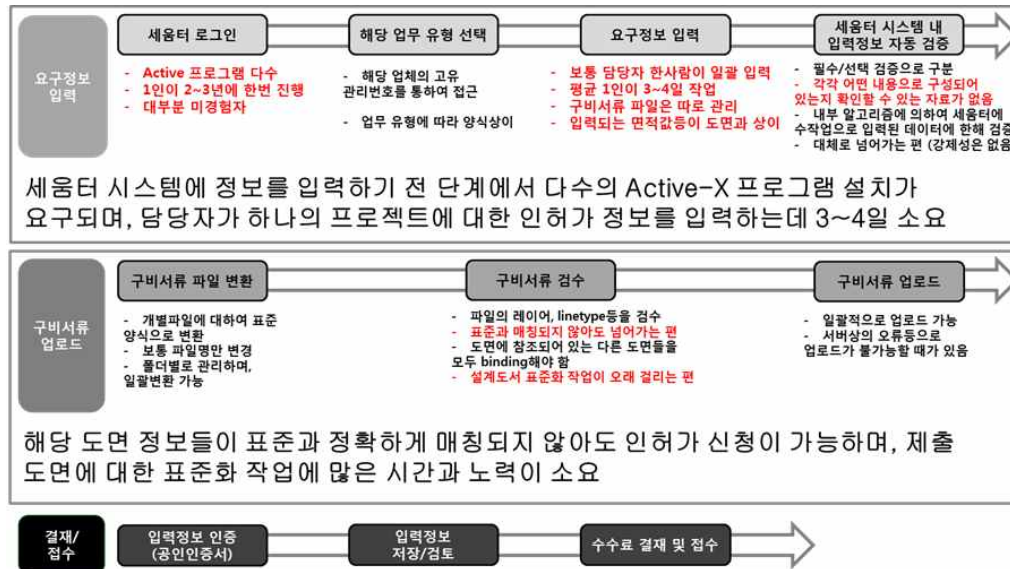
- 세움터 기반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입력되는 요구정보는 설계과전에서 모두 생성됨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로 인허가 신청 요구정보 생성 업무 정의



<그림> 인허가 신청과정을 위한 사전협업과정

• 세움터기반 인허가 업무분석

- 세움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기 전 단계에서 다수의 Active-X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며, 담당자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정보를 입력하는데 3~4일 소요
- 설계도서를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면들이 표준과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도면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그림> 세움터 기반 인허가 신청과정의 비효율성

• 세움터기반 인허가 요구정보 정의

- 인허가 신청 요구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BIM기반 건물 모델에서 추출 가능한 BIM 내부 정보와 BIM정보로부터 생성하기 어려운 BIM 외부정보로 분류하였으며, BIM 외부정보는 9개 유형의 31개 항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2개 유형의 15개 항목은 건축주와 설계자의 개인정보로 구성됨, 또한 BIM 내부정보는 BIM기반 건물모델에서 직접적으로 추출 가능한 3개 유형의 10개 항목과, BIM기반 건물모델로부터 작성된 설계도서에서 추출 가능한 4개 유형의 29개 항목으로 구성됨